도난됐던 예천 보문사 신중도 35년만에 '환지본처'

조계종, 4월 23일 환수 고불식
국외재단 美현황 조사서 확인해
스마트미술관, 무조건 반환 결정
보문사 환수기금 4000만원 전달
진우 스님 "삼보 귀의 가피 순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석천과 위태천이시여! 좋은 인연을 만나 제자리로 돌아오셨으니 먼 길을 떠돌던 나그네가 고향에 온 것과 같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도상(圖像)을 조성한 이들이 머물고 당신을 찬탄하고 또 예배하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니 이제 이곳에서 편히 머무소서."(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고불문 중)

문화유산 전문 털이범들에게 도난당해 행방이 묘연했던 예천 보문사 신중도가 35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예천 보문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봉행하고, 성보가 제자리로 돌아감을 부처님께 알렸다.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던 신중도는 1989년 6월 5일 다른 불화들과 함께 도난당했다. 당시 함께 도난된 아미타불회도와 삼장보살도는 2014년 국내에서 환수됐으나 신중도의 행방만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6월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이 미국 소재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미국 시카고대학 스마트미술관에 보문사 신중도가 소장돼 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조계종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명의로 2023년 8·12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미술관에 신중도가 한국 사찰에서 도난된 성보유산임을 알리고 반환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도난 장물임을 인지한 스마트미술관은 지난 2024년 7월 보문사 신중도를 영구 소장품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계종에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



4월 23일 예천 보문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헌향 후 합장 반배하고 있다.

2024년 11월 19일 조계종 대표단이 스마트미술관을 방문해 신중도 반환에 대한 협약을 완료했다. 특히, 스마트미술관은 신중도의 종교적인 가치 회복에 공감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의 박물관 윤리 강령에 따라 조건 없는 반환을 흔쾌히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 보문사 신중도는 1767년 혜잠 스님이 그린 불화로, 좌우에 제석천과 위태천을 크게 그려 현전하는 다른 신중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함께 도난됐다가 환수된 아미타불회도, 삼장보살도와 같은 시기, 같은 화승에게 조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성보 환수에 함께 노력해준 관계기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자리를 떠난 성보가 환지본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 즈음해 법보(法寶)의 귀환이라는 큰 경사가 더해진 것은 삼보에 대한 귀의심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는 특별한 가피의 순간"이라며 "불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 보문사 주지 도문 스님은 신중도 환수에 노력해준 종단 종무기관과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보문사 대중은 성보환수기금 4000만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하며, 성보 환수를 위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도문 스님은 "성보는 불교 신자들의 공경과 예배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보문사 신중도는 250년 전 혜잠 스님을 비롯한 당시 보문사 불자들의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다"며 "그 서원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은 이날 보문사 신중도를 최초 발견해 환수를 이끈 이민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실태조사부 책임연구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제3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전

8월 26~28일 작품 접수 진행

한국 불교미술 분야의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대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공모전이 개최된다.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혜공 스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을 확정·발표했다.

불교미술대전 공모전은 △회화 △조각 △공예 △미디어아트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작품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작품 접수 장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이다. 미디어아트 부문은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전의 상세한 요강 및 접수원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9월 중 이뤄지며, 결과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10월 14일 오후 2시 그라운드 서울(구 아라아트센터)에서 진행되며, 수상작품들은 10월 23일까지 전시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40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3명에게는 각 1000만 원, 우수상 4명에게는 각 600만 원, 장려상 8명에게는 각 200만 원이 수여된다.

불미전 운영위원회는 "1970년 처음 시작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 미술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미술대회로, 불교미술대전 출신 작가들의 육성과 더불어 미술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을 추구하는 제3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석전 스님 한시집 '석전속시초' 발굴

봉선사 운허기념사업회 협조로
1939~45년作 한시 400수 담아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
7월 3일 학술대회서 해제 발표

석전 박한영 스님의 한시집이 동국대의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최초로 발굴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석전 스님의 한시집 〈석전속시초〉를 최초 발굴해,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발간 예정인 '석전 박한영 스님 전서'에 포함해 편찬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동국대 석전 박한영 스님 전서 편찬사업단(소장 김상일, 이하 석전전서사업단)은 석전 스님 전서 편찬 과정에서 〈석전석시초〉를 처음 발굴하고 봉선사 운허기념사업회의 협조로 번역을 진행 중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석전석시초〉는 석전 스님이 칠순 기념으로 펴낸 시집 〈석전시초(1940)〉 출판 이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은 한시 400수를 석전스님이 직접 필사한 것이다.



동국대가 최초 발굴한 석전 박한영 스님의 한시집 '석전속시초'의 표지.

석전전서사업단은 "그동안 석전 스님의 회고를 비롯한 관련 자료집이나 평전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는 신자료를 발굴한 것"이라며 "이번 자료는 석전 스님으로부터 봉선사 운허 용하 스님이 전수받은 것으로, 월운 해룡 스님이 소중하게 보존해 온 귀중한 도서"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발굴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를 비롯해 불교문학 연구, 석전 스님 일생 복원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문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석전전서사업단은 오는 7월 3일 동국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석전석시초〉에 대한 상세한 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호 전임연구원(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산하 석전 박한영 스님 연구팀)은 "석전전서사업단과 봉선사 운허기념사업회에서 추후 석전아카이브 및 운허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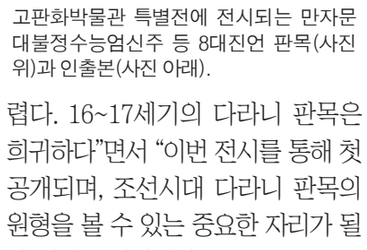
운허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향성 스님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석전 스님과 운허 스님 간의 인연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동아시아 고판화 진면목을 확인하다

원주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미공개 명품 판화 50여 점
오는 8월 31일까지 전시해





고판화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만자문 대불정수능엄신주 등 8대진언 판목(사진 위)과 인출본(사진 아래).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물관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동아시아 미공개 고판화 명품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00여 점 중 도상적 가치가 희귀하고 우수한 유물 50여 점이 공개된다.

특히 고판화박물관이 일본 경매에서 낙찰 받아 환수한 17세기 조선시대 다라니 판목을 주목할 만하다. 다라니 판목에는 만자 보협인다라니와 만자문 대불정수능엄주 등 8대 진언이 양면에 새겨져 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조선시대 다라니 인출본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지만, 판목 원본은 찾아 보기 어렵다. 16~17세기의 다라니 판목은 희귀하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첫 공개되며, 조선시대 다라니 판목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판화로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히는 극락장엄도 계통 판화의 원류로 평가 받는 대형 '구품 왕생도'가 공개된다. 탁본으로 제작된 대형 어람관음도(물고기 바구니를 든 관음)와 일본 에도 시대 초기인 1684년에 제작된 대형 '관경만다라'도 전시된다.

신중일 기자

해인사 성보유산 면면, 사진으로 만난다

해인사성보박물관 테마전
갤러리서 9월 28일까지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 성보문화유산의 면면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현석 스님)은 오는 9월 28일까지 박물관 갤러리 전시실에서 '천년보고(千年寶庫), 해인사' 테마전을 개최한다.

제65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정대불사)를 맞아 열리는 이번 테마전에는 해인사 문화유산들의 사진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세계유산으로 각각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과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합천 해인사 길상탑'(보물),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보물), '합천 해인사 홍하문'(보물), '해인사 봉황문'(경남 문화유산자료),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경남 유형문화유산) 등의 사진이 전시된다.

해인사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은 "해인사는 순응·이정 스님에 의해 802년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오랜 세월 가야산에 자리하며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보고(寶庫)"라며 "해인사를 방문하면서도 지나쳐왔던 다양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고 되돌아보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오신날 만나는 불교 항일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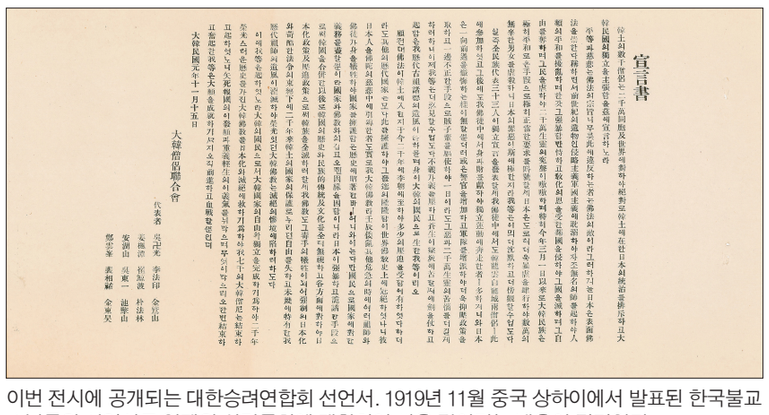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5월 18일까지
'독립운동과 불교' 기획전
불교 독립운동 자료 전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제강점기 불교가 펼쳤던 독립운동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은 5월 18일까지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 특별기획전을 겨레의 집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 연간 전시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독립운동 자료 및 사진 66점이 전시된다. 1부 '일제의 종교 탄압에 맞서다'에서는 일제의 종교 통제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불교 사상을 정비하고, 불교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살펴본다.

2부 '민중과 함께 일제에 저항하다'에서는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 투쟁과 3·1운동 등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식민통치에 항거했던 모습을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 공개되는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1919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스님들의 선언서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3부 '사찰을 넘어 독립운동에 헌신하다'에서는 3·1운동 이후 외교·선전 활동, 무장투쟁, 문화수호운동 등 국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불교인들의 독립운동을 다룬다.

이번 전시는 독립운동가의 회고, 수기, 일제의 재판 기록 등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서책 읽어보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코너도 마련됐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독립기념관은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 전시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인들의 헌신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올해 하반기 민족종교(10월), 기독교(12월)를 주제로 특별전을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대만불교 통해 한국불교 방향성 살피자"

교불련, 불교미래포럼 성료



대만불교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불교 전법 포교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4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만불교에 길을 묻다-대만불교에서 구하는 한국불교 전법·포교의 방향'을 주제로 제10차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했다.〈사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은 대만불교 신흥사대종문이 보여준 전법·포교, 교육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기조강연 '대만불교에서 배우는 불교의 세계화 비전'에서 현재 한국불교를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지적하며 "대만불교가 지난 수십 년간 시행해 온 현대화·국제화·사회참여 전략은 한국불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경 스님은 △국제 포교를 위한 중앙 플랫폼 구축 △해외 교육기관 확대 △자비행 위주 국내 활동을 국제NGO화 △선명상 콘텐츠 현대화 및 글로벌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00년대 대만 불교 전법포교의 변화 특징(곽뢰, 동국대) △대만 신흥 사대종문의 전법 포교 활동의 현주소(양정연, 한림대) △대만불교 전통 종단 및 비구니회의 활동(김응철, 중앙승가대)이 주제 발표됐다.

이어 '한국불교의 전법포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서울불광산사 주지 혜호 스님, 김대열 동국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전법포교 방향을 살폈다. 신중일 기자